[지역대학이 힘이다] 인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창의력 중심 교육으로 전문 실내건축가 양성

최인락 기자 | 승인 2021.09.07 20:34

우리가 경쟁력, 지역대학 특성화 학과 - 16) 인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이 건축 설계 도면을 보고 있다. 최인락 기자

창의적 중심 교육방식 운영
연구 동아리·해외 교류 활발
기업 디자인 직무 중심 취업

'공간'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사회의 수준을 반영한다. 공간을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구조적인 면으로 보면 안전함과 안락함을 준다. 미(美)적 측면으로 보면 정서를 윤택하게 해준다. 인제대학교 실내건축학과(학과장 김석태)는 공간을 분석하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내건축가 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연구 =** 인제대 실내건축학과에서는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사용자의 행태 분석을 기초로 한 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배운다. 또 도시 공공환경에서 건축물의 내부공간까지, 학과에서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을 연구한다.

특히 학과에서는 창의력 중심의 교육방식을 운영 중이다. 2017년부터는 'CDIO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다. CDIO는 상상(Conceive), 설계(Design), 실행(Implementation), 가동(Operative) 등 실제 공간을 구축하는 방법을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교육부 중점연구소 사업, BK21사업, PRIME과 LINC+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학과 학생들은 학년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받고 있다. 저학년인 1~2학년 때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배우고 고학년인 3~4학년에는 전문적 강화를 위해 실습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습과목은 학과에서 구축한 4곳의 실습실에서 이뤄진다. 학생들도 학습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재학생 서재경(21) 씨는 "'공간'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사실 느낌을 직관적으로만 표현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공간이 효율적인가, 낭비되는 곳은 어디인가를 따져본다. 공간을 잘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학과 학생들이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와 공동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해외 5곳 대학과 상호협력 = 학과는 전문적인 실내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학과 내부에서는 '단기 소규모 연구 동아리'를 꾸려 학생 주도 연구를 실시한다. 현재는 새집증후군을 연구하는 동아리, 드론을 활용해 건축에 대해 이해하는 동아리 등 폭넓은 분야의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다.

학교 외적으로는 글로벌 학교와의 업무 협약이 대표적이다. 학과는 미국 2곳, 중국과 체코, 말레이시아 각 1곳의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해외연수·해외인턴 등을 상호협력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이어온 텍사스 주립대학과의 공동수업은 양 학교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학과는 '헬스케어서비스디자인 연계전공'을 운영하며 학생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대학 내 의료·보건 관련 학과들과 함께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연계전공이다. 이 전공은 디자인, 보건, 경영, 행정, 의용공학이 결합된 융합학문으로 창의적인 헬스케어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계전공은 전공 선택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해 별도의 학과 신설 없이 마련된 전공이다.

◇기업체 디자인 직무 취업…공직·학계 등 진출 활발 = 이 학과 학생들은 디자인 전문회사부터 기업체 디자인실까지 디자인 직무로의 취업이 일반적이다. 일부 학생들은 김해문화재단이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공공기관으로 진로를 설정하기도 한다.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교

교수 등 학계로 진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학과는 실무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주효했다고 설명한다. 학과장 김석태 교수는 "현재 학과에서는 지역 우수 기업으로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건축디자인 세미나 등을 시행해 실무 중심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 진학을 독려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게 학과의 목표다"고 말했다.

학과는 또 내부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생회장 천라한(24) 씨는 "실내 건축 분야는 동료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학과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까지 유대감이 형성돼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했다.

한편 인제대 실내건축학과는 2022학년도 신입생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